



Mega-trend와 소재

김 정 규

패션신소재 연구센터 (F.T.C)

1. Mega-trend의 중요성

우리나라 섬유산업 분야(소재 전문가 그룹)의 학계 및 현장 종사자들에게 가장 거리감을 느끼게 했던 대표적 단어들인 패션(fashion), 모드(mode), 트렌드(trend), 에콜로지(ecology), 모던(modern) 등의 단어들인 우리의 일상용어들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은 20세기 후반인 1980년 중반부터이며 이 시점부터 21세기인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확한 용어의 개념 정리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패션트렌드는 소재 전문가들인 소재 머천다이지 및 소재 디자이너들이 패션 상품기획 과정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비해서 용어 및 개념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트렌드의 성격상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 다양화되어 가는 패션트렌드를 쫓아가기에도 바빠서 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요한 패션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션트렌드의 테마(theme)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mega-trend)의 분석에서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메가트렌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의 흐름과 배경을 섬유, 패션 산업분야에 적용한 아주 중요한 패션트렌드 요소로 정의되어지며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위치에 놓여

있는 패션트렌드 요소들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메가트렌드는 패션트렌드를 분석, 예측하는데 있어서 일의 순서 및 중요성에서 가장 먼저인 일차적인 자료이며 이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예측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메가트렌드의 부분집합이며 실질적인 시즌 상품 컨셉(concept)인 패션트렌드는 색상(color), 소재(fabric), 스타일(style) 트렌드로 세분화되어지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재트렌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미 소재의 중요성을 인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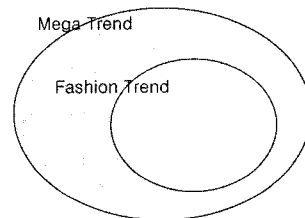


Figure 1. 패션트렌드와 메가트렌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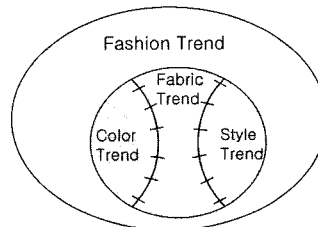


Figure 2. 패션트렌드의 요소.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Figure 1, 2 참조). 예를 들면 최근 가장 유행했던 본딩(bonding) 소재중 유명디자이너인 프라다(Prada)의 이름으로 명명된 프라다 원단(Prada fabrics)은 직물과 편물의 결합 형태이지만, 이 원단의 구성 소재인 직물과 편물이 갖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감성과 물성을 가진 가장 각광받는 소재로 인식되어 소재전문가들과 소비자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특히 패션회사 및 소재 생산처들이 수많은 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차별화, 즉 소재의 차별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패션트렌드의 분석, 즉 메가트렌드의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함과 동시에 메가트렌드의 중요성도 함께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2. Mega-trend의 요소와 소재

패션트렌드의 테마를 선정하는 주요 의식의 흐름과 배경이 되는 메가트렌드를 패션트렌드와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 트렌드는 특정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들을 재해석해서 하나의 테마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메가트렌드는 일정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들을 하나의 전반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유행을 창조하는 목적을 가진 패션회사와는 달리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섬유회사에서도 이제는 트렌드라는 용어자체가 예전처럼 많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용어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두려움과 이질감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패션트렌드를 제안하는 회사들은 패션정보회사, 소재 생산처, 소재 관련단체, 소재 컨버터(converter)들로 크게 구별되며 이들이 제공하는 패션트렌드가 항상 추상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재 머천다이저와 소재 디자이너들이 패션트렌드

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패션정보회사들이 제안하는 패션트렌드는 패션상품의 세가지 영역중 색상, 스타일의 영역은 어느 정도 심도 깊게 전달하는 편이지만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소재 영역에서는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소재 생산처, 소재 관련단체, 소재 컨버터 등에서 제안하는 패션트렌드들은 트렌드의 근간이 되는 메가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재 생산처 및 소재 관련단체의 주요 생산 제품을 위주로 하여 트렌드를 짜깁기 하듯이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확한 패션트렌드와는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패션회사 소재 머천다이저와 소재 디자이너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여 소재 트렌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특히 부족하고 잘못된 트렌드 분석은 특히 소재 생산처의 소재 머천다이저들에게 트렌드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패션 트렌드를 제안하는 패션 정보회사, 소재 생산처, 소재 관련단체, 소재 컨버터 등이 패션 트렌드를 분석할 때 기존의 종, 횡의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받는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설정은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패션 트렌드의 제안을 유도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패션회사와 소재 생산처, 소재 관련단체, 소재 컨버터 등의 소재 머천다이저들이 가장 먼저 정확한 메가트렌드의 분석과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분석에서는 일정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현상들을 의식의 흐름으로 정의하는 메가트렌드의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렇게 선정된 현대 패션의 메가트렌드 주요소는 에콜로지(ecology), 글로벌(global), 노스탤지어(nostalgia), 퍼지(fuzzy), 에스닉(ethnic) 등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의 요소들이 메가트렌드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재들을 설명하면 Table 1과 같다(Figure 3, 4

Table 1. 메가트렌드의 요소와 소재

요소	배경	소재
에콜로지 (Ecology)	자연보호, 재활용, 친환경적 등의 사회적 운동으로 환경과 인간 그리고 패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천연소재 및 내추럴이미지 소재에 대한 관심 고조
글로벌 (Global)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의 퇴조로 새롭게 등장한 세계주의 사상체계의 의식의 흐름을 분석	소재의 색상 및 원료의 복합화로 인한 복합감성 소재에 대한 관심 고조
노스탤지어 (Nostalgia)	향수를 느끼는 인간의 회귀본능을 다각적으로 패션에 접목하여 분석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받아 왔던 친숙한 소재들에 대한 관심 고조
퍼지 (Fuzzy)	다치성인 퍼지이론이 광범위한 응용분야에서 실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	실용주의, 기능주의를 의미하는 소재에 대한 관심 고조
에스닉 (Ethnic)	자연과 문화의 융합으로 자연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오지의 민속적인 문양과 색상에 대한 분석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소재디자인 및 색상에 대한 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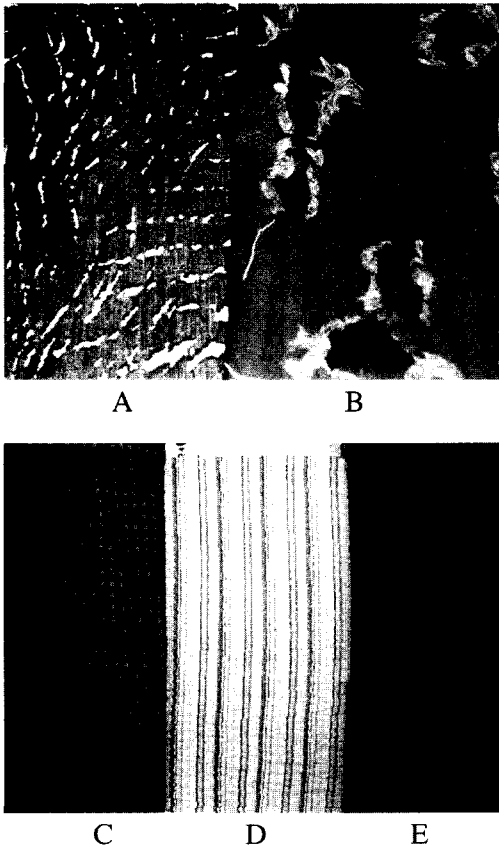


Figure 3. 메가 에콜로지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소재. (A) 가먼트 상태의 그린지룩 데님, (B) 원단 상태의 그린지룩 데님, (C) 불규칙한 시로셋, (D) 수축차를 이용한 시어셔커, (E) 산형의 스피츠 가공 플라플리스.

참조).

3. 에콜로지트렌드 소재의 실제

3.1. 에콜로지 트렌드 소재이미지

메가트렌드의 대표적인 요소인 에콜로지 트렌드가 패션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3~4년경 패션트렌드의 테마로 설정되면서부터 시작이다.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패션트렌드로 전위되면서 내추럴(natural)이라는 테마 이미지로 표현되어졌고, 내추럴 패션이미지는 소재에도 영향을 미쳐 꾸미거나 정제되지 않으면서 거친듯한(rustic) 느낌과 빛바랜듯한(fade-out) 느낌의 소재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에콜로지 트렌드 소재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내추럴 이미지를 지향하는 메가 에콜로지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한다. 1980년 후반 경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자연에 대한 탐구, 생명체에 대한 신비로움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자연 환경보호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모던(modern)한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재도 마이크로(micro) 타입의 부드럽고(soft) 젖은(wet) 느낌의 소재들이 각광을 받아 천연 섬유지향의 신타입 소재와 지금까지 구경하지 못했던 피치스킨(peach-skin) 소재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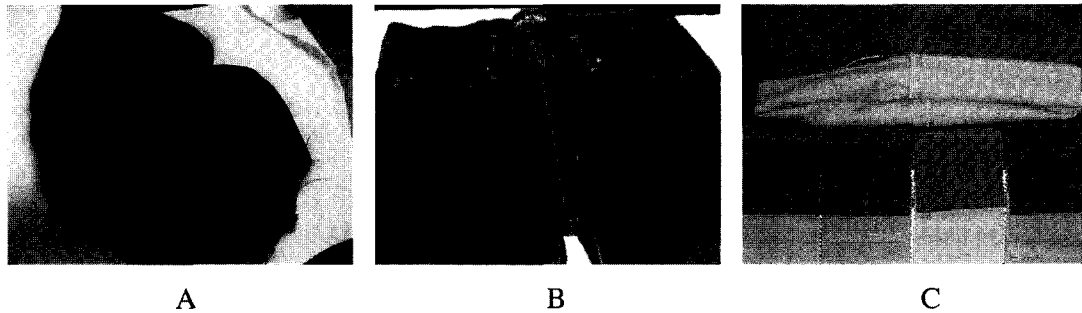


Figure 4. 메가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소재. (A) 경위사의 색상을 달리한 투톤의 선-크로스 소재, (B) 반응성 염료와 인디고 염료를 이용한 이중염색 투톤 소재, (C) 염료와 피그먼트를 이용한 이중염색 소재.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탐구보다는 환경에의 적응과 융화로 관점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메가 에콜로지 트렌드는 친환경적인 바이오(bio) 이미지로 옮겨지면서 소재도 효소가공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브릴의 촉감인 정리된 매끄러운 촉감을 가지는 소재(smoothness)가 등장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Figure 5 참조).

최근 메가 에콜로지 트렌드는 한바퀴 순환되어 메가 에콜로지 초기인 1983~4년과 같은 내추럴 이미지를 추구하나 현재 나타난 소재의 실질적인 느낌을 보면 내추럴 이미지뿐 아니라 다른 메가트렌드 요소들이 cross-over되어 기존의 내추럴 소재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추럴 이미지의 복합감성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3.2. 내추럴 이미지의 거친듯한 소재

내추럴하면서 거친듯한 느낌의 소재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마섬유이다. 이러한 마섬유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섬유이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면섬유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류용 소재로는 현저하게 퇴조하였지만 내추럴 에콜로지가 테마로 등장하면서 그 테마에 적합한 소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섬유 중에서도 아마섬유는 고유한 천연색상과 섬유자체가 굵고 불균제하여 나타나는 시감과 촉감의 거친듯한 느낌으로 다른 마섬유보다도 더욱 각광받는 패션소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징적인 외관과 촉감으로 에콜로지 트렌드에 충실한 아마섬유는 에콜로지 트렌드의 테마이미지가 시대성에 따라 내추럴-에콜로지, 모던-에콜로지, 바이오-에콜로지 등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섬유와의 교직, 혼방 및 워싱 등의 새로운 가공방법으로 새로운 테마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계속 사용되었다(Table 2, Table 3 참조).

3.3. Cool wool 소재와 이미지

원래 양모소재는 추동용 소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춘하용 소재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실제적으로 봄가을의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겨울도 온난화 현상으로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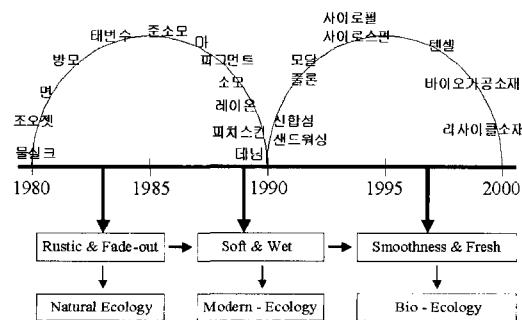


Figure 5. 에콜로지 소재의 사이클.

Table 2. 아마섬유의 가공종류에 따른 패션이미지

가공	이미지
일반가공	내추럴-에콜로지
일반위싱가공	내추럴/모던 에콜로지
샌드위싱가공	모던 에콜로지
효소위싱가공	바이오 에콜로지

Table 3. 아마섬유의 혼방 및 교직 소재의 패션이미지

혼방 (기능 표현 위주)	교직 (감성 표현 위주)	이미지
Cotton/Flax	Cotton/Linen	내추럴-에콜로지
PET/Flax	PET/Linen	모던-에콜로지
Rayon/Flax (Modal, Lyocell)	Rayon/Linen (Modal, Lyocell)	바이오-에콜로지

상품판매기간이 길어진 여름용 cool-wool 원단의 소비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비량이 늘어난 cool-wool 소재는 종류도 다양하며 각 종류마다 주는 소재이미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패션 트렌드에 적합한 cool-wool 소재를 선택하여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에콜로지의 내추럴 이미지를 표현하는 cool-wool 소재는 크게 거친 느낌을 주는 새발가공 모직물(albatros), 강연(high-twist) 모직물, 역연(reverser twist) 모직물, 크레스피노(crespino) 모직물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깨끗이 정리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사이징(sizing) 모직물, 사이로스핀(siro-spun) 모직물, 사이로필(siro-Fil) 모직물, 모헤어(mohair) 혼방된 모직물 등은 모던 에콜로지와 바이오 에콜로

지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거친듯한 느낌과 정리된 느낌의 상반된 cool-wool 소재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각각의 용도와 이미지에 따라 소재 시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Table 4 참조).

3.4. 내추럴이미지의 빛 바랜듯한 인디고 데님 소재

앞에서 언급한 거친듯한 소재는 주로 섬유 원료 자체가 부여하는 감성이라면 빛 바랜듯한 느낌의 소재는 여러 가공을 통하여 색상의 변화에서 오는 또 하나의 내추럴-에콜로지 감성 소재 그룹이다. 빛 바랜듯한 느낌을 주는 여러 소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진즈웨어(jeans-wear)를 만드는 인디고 데님 소재이며 이 소재들은 인디고 염료의 농도, 염색회수, 염색방법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소재이다.

일반적인 진즈웨어에 사용되는 인디고 염색은 사염(yarn dyeing)을 통해 인디고 블루를 나타내며 후공정인 가먼트위싱(garment-washing)으로 색상변화를 표현하지만 모던-에콜로지 시대에는 깊이감이 있는 인디고 블루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포지 염색(piece dyeing)을 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염을 통해 색상(hue) 변화를 추구한 진즈-웨어의 마케팅 이미지는 오래입어서 친숙한 이미지의 옷으로, 그리고 포지염색을 통해 톤(ton)의 변화를 추구한 진즈-웨어의 마케팅 이미지는 입을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듯한 이미지 옷으로 기

Table 4. Cool-wool 직물의 용도, 이미지별 분류

소재명	용도 · 이미지	캐주얼용	정장용	이미지
강연 모직물		●	◎	내추럴-에콜로지
새발가공 모직물		●	◎	내추럴-에콜로지
역연 모직물		●	◎	내추럴/모던 에콜로지
크레스피노 모직물		●	◎	내추럴/모던-에콜로지
사이징 모직물			●	모던-에콜로지
사이로스핀 모직물			●	모던/바이오 에콜로지
사이로필 모직물		◎	●	모던/바이오 에콜로지
모헤어 혼방 모직물			●	바이오-에콜로지

◎: 주용도, ●: 부가용도.

확되고 있다.

이처럼 염색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워싱 방법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디고 염색 소재들은 가먼트 워싱후에 나타난 소재 이미지가 패션상품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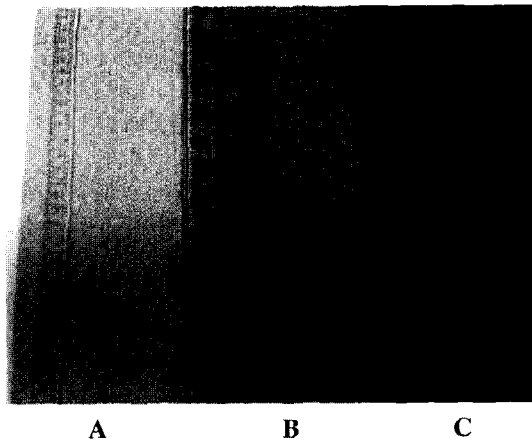


Figure 6. 진즈-웨어의 색상 변화. (A) 모던이미지-슈퍼블리치, (B) 내추럴이미지-빈티지, (C) 바이오이미지-다크블루.

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가먼트 워싱후의 색상변화는 다양하지만 크게 빈티지(vintage) 그룹, 슈퍼블리치(super bleach) 그룹, 다크블루(dark blue) 그룹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특수한 워싱 방법도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진즈-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에콜로지 트렌드가 빛 바랜듯한 느낌을 추구하지만 트렌드에 따라 요구되는 색상과 이미지가 시대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Figure 6, Table 5 참조).

4. 결 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패션성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기획은 패션트렌드의 정보수집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재전문가들인 소재 머천다이저나 소재 디자이너들이 소재기획을 위해 수집한 트렌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소비

Table 5. 진즈-웨어의 일반적인 워싱 가공 종류

가공 방법	소재 특징	이미지
윈 워싱 (Win washing)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사용한 가공으로 호제 및 미부착 염료의 탈락을 목적으로 한 가벼운 워싱 느낌을 준다.	내추럴 에콜로지 태동 전
스톤 워싱 (Stone washing)	스톤을 사용한 가공으로 부드러운면서도 거친듯한 느낌을 주며 인디고의 색상의 변화로 대표적인 빈티지 룩을 표현한다.	내추럴 에콜로지
블리치 아웃 워싱 (Bleach-out washing)	표백제를 사용한 가공으로 인디고 색상의 변화가 많아 표면에 전체적으로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나 차가운 질감을 부여하여 슈퍼블리치 룩을 표현한다.	모던 에콜로지
케미컬 워싱 (Chemical washing)	약품 처리에 의해서 장시간 스톤 워싱에 의한 소재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면서 인디고 색상의 변화와 표면 주름을 생기게 한다.	모던 에콜로지
샌드 워싱 (Sand washing)	고운 샌드페이퍼로 약간 처리한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표면 가공법으로 주로 춘하절기 얇은 소재에 많이 사용된다.	모던 에콜로지
스톤 블리치 워싱 (Stone-bleach washing)	스톤과 표백제를 동시에 처리한 가공으로 스톤 워싱의 효과와 블리치 아웃 워싱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모던 에콜로지
스톤 케미컬 워싱 (Stone-chemical washing)	스톤과 약품처리에 의해 스톤 워싱의 효과와 케미컬 워싱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모던 에콜로지
바이오 워싱 (Bio washing)	효소를 사용한 가공으로 부드러운 촉감과 인디고 색상을 얹게 하여 표면의 잔 섬유질을 깨끗이 정리하여 준다.	바이오 에콜로지
스톤 바이오 워싱 (Stone-bio washing)	스톤과 효소를 동시에 처리한 가공으로 스톤 워싱의 효과와 바이오 워싱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바이오 에콜로지
논 워싱 (Non-washing)	환경 친화적인 테마의 영향으로 색상의 변화가 없는 일반 염료를 사용한 데님 소재로 다크블루 톤을 그대로 유지하여 준다.	바이오 에콜로지

자와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메가트렌드중 특히 에콜로지 트렌드는 20세기 패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21세기에는 어느 특정의 메가트렌드가 패션을 리드하기보다는 에콜로지, 글로벌, 퍼지의 3대 트렌드들이 서로 mix-up 되면서 부가적으로 민속 문양을 대변하는 에스닉과 인간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노스탤지어의 트렌드들이 포함된 새롭고 다양한 모양의 복합 트렌드들이 복합감성(ambi-emotion)을 표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평안함(well-being)

을 추구할 것이다. 2004-5년 추동 패션 트렌드를 보면 기술과 감성, 완벽함과 불완전함, 어두움과 밝음, 복잡함과 단순함 등의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혼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재미난 처리(방적, 염색가공)를 통하여 새로운 소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개념(new)의 소재라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에게 검증된 소재를 자유롭게 변형, 개선, 재구성 하는, 기술과 감성이 혼합된 새로운(fresh) 소재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자 소개



김정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섬유공학과 졸업
(주) 논노 소재기획 부사장 역임
현재, 숭실대학교 패션섬유공학부 겸임교수
현재, 패션 신소재 연구센터 연구원
현재, 예지 Tex 대표이사
대구 광역시 달서구 장동 333-3
Phone : 053)592-0211-2, Fax : 053)592-0213
e-mail : kjgtop1207@yahoo.co.kr